

Before & After — 01

가까운 미래, 왜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가?

글. 이원영 정보통신기술사
現 문엔지니어링 근무 중
前 문화방송 TV송출부 부장

“ 필자는 2019년 1년간의 안식년 휴가 및 2020년 명예퇴직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사 준비를 하고 5번의 시험 낙방 후 얻은 결실로 2022년 126회 정보통신 기술사 자격을 취득, 현재 문엔지니어링 소속으로 철도공단 철도현장에서 통신 감리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 3번의 연재를 통해 필자의 퇴직 과정을 살펴보고 정보통신기술사로 다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CONTENTS

- 제1장. 가까운 미래, 왜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가?
- 제2장.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시험, 왜 방송기술과 밀접한 관계인가?
- 제3장. 합격 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



Before



After



제1장.

가까운 미래, 왜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후배 방송기술인 여러분! 저는 제126회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前 문화방송 TV송출부에서 근무한 이원영입니다. ‘방송과기술 편집진’의 요청 때문에 퇴직한 몸으로 방송과기술에 기고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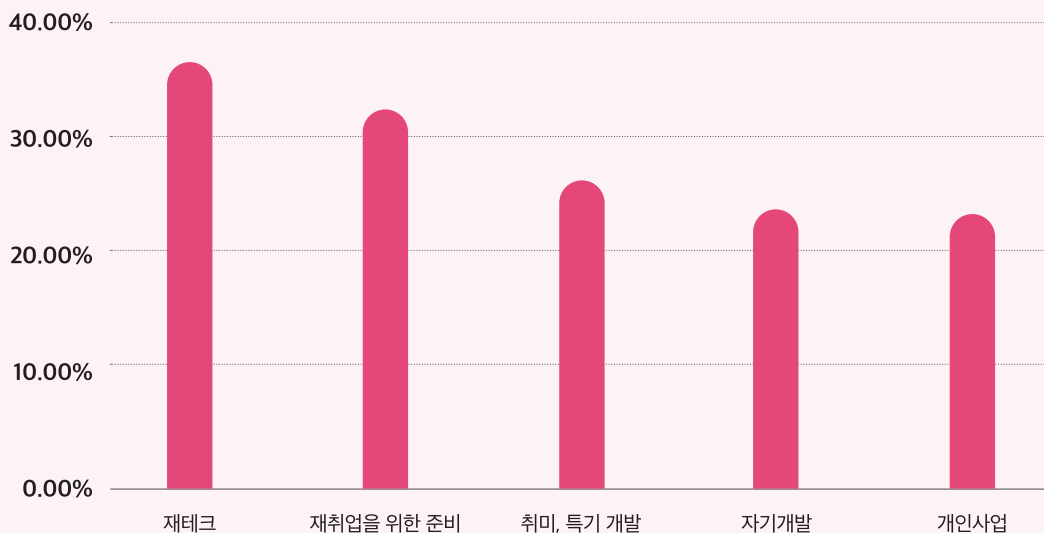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사 취득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본지를 통해 여러 번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듯 합격자분들이 전하는 학습 방법들이 잘 와 닿지 않고 어떤 때는 너무 내 현실과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격 후 우리 방송기술인이 왜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에 최적화된 직종인지 알게 되었고, 자격 취득 후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가를 3번의 연재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쉽고 빠르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트로로써 왜 우리의 가까운 미래인, 퇴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가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기사 및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 및 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인생 이모작 준비에 대한 언급은 여러분들도 지겹도록 접하셨을 겁니다. 우선 이 잡지의 성격상 방송기술인들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전제하에 퇴직 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른 콘텐츠로 이동하셔도 좋을 듯하며 정말 가까운 미래에 퇴직이라는 단어를 몸소 달고 다니실 분들을 위한 글로 시작할까 합니다.

한 조사기관에 의한 직장인 인생 이모작의 준비에 대한 설문에서 37.9%의 직장인은 재테크로 경제력을 향상하고자 하며, 32.7%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 25.6%는 취미·특기 개발, 22.8%는 자기개발로 외국어 직무향상 등을 준비하며, 22.2%는 개인 사업 및 창업 준비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준비 중이신지요?

저의 경우는 퇴직준비를 위해 우선 안식년 제도를 활용, 부족한 저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시간을 가졌고 이후 바로 명예퇴직을 이용, 나머지 시간을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시간에 투자하였습니다만, 그 기간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경제력이었습니다.



직장인 인생 이모작의 준비에 대한 설문 결과

조사기관들의 결과 역시 인생 이모작 준비에 어려운 점이 자금 부족이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의 삶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퇴직 후 우리 방송기술인들의 재취업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직업이 ‘방송기술 계약직’으로 자사에 재취업하기이고, 밖에서는 방송중계기술이 가능한 ‘야외 중계차 운용’ 등 매우 제한적인 업무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환경일 듯합니다.

또 몇몇 분들은 기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보다는 4대 보험과 자격 수당을 얻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 공부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인맥과 시장의 여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취업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연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술사 자격은 여러 분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기술인의 유일한 미래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술자격증인 기술사는 은퇴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영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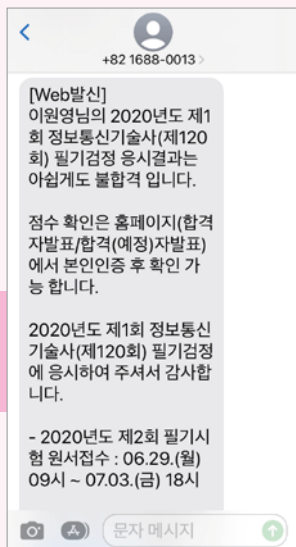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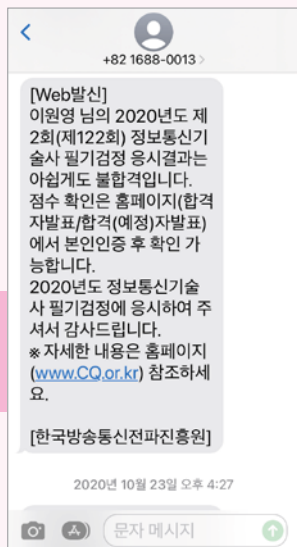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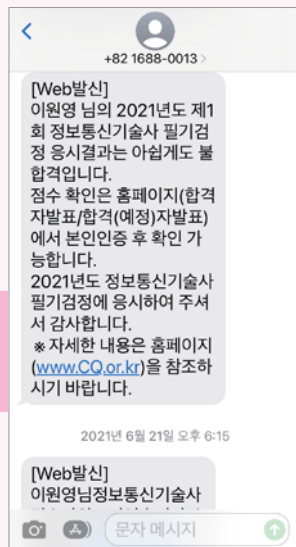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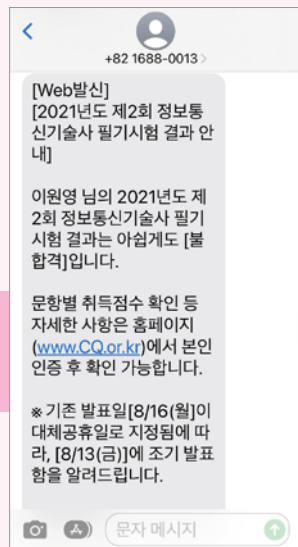
기술사법에 따르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 기술 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전문적 응용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자격 취득 후에는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약 16가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선 정보통신 초급 기술자 및 초급 감리원 자격을 우선 취득하였습니다. 기술자자격은 경력 인정 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영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등급을 부여, 정보통신 공사 시공 및 감리업무에 대해 공사비에 따른 배치 기준에 준하는 자격 소유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자격증으로 여러 분들도 현재의 직무 경력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우선 기술자자격 취득을 권합니다. 그 후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등급과는 무관하게 특급 기술자로 등급이 자동 부여됩니다.

저의 경우는 초급 기술자자격을 통한 초급 감리원 교육 수료 중, 당시 강사진 전원이 정보통신기술사로 구성되어 있어 수업시간 내내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의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저의 미래상을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시험과목이 워낙 방대하며, 정규

지난 2년간의 정보통신기술사 필기시험 응시 결과

 [Web발신] 이원영님의 2020년도 제1회 정보통신기술사(제120회) 필기검정 응시결과가 아쉽게도 불합격입니다. 점수 확인은 홈페이지(합격자발표/합격(예정)자발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정보통신기술사(제120회) 필기검정에 응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Q.or.kr)를 참조하세요. - 2020년도 제2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 06.29.(월) 09시 ~ 07.03.(금) 18시	 [Web발신] 이원영님의 2020년도 제2회(제122회) 정보통신기술사 필기검정 응시결과가 아쉽게도 불합격입니다. 점수 확인은 홈페이지(합격자발표/합격(예정)자발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도 정보통신기술사 필기검정에 응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Q.or.kr)를 참조하세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Web발신] 이원영님의 2021년도 제1회 정보통신기술사 필기검정 응시결과가 아쉽게도 불합격입니다. 점수 확인은 홈페이지(합격자발표/합격(예정)자발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도 정보통신기술사 필기검정에 응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Q.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6:15	 [Web발신] [2021년도 제2회 정보통신기술사 필기시험 결과 안내] 이원영님의 2021년도 제2회 정보통신기술사 필기시험 결과는 아쉽게도 불합격입니다. 문항별 취득점수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Q.or.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 기존 발표일[8/16(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8/13(금)]에 조기 발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대학과정에서의 학위 취득도 없고 현업에 익숙한 저로서는 전문성 있는 답안 작성이 쉽지가 않아 기본 실력 다지기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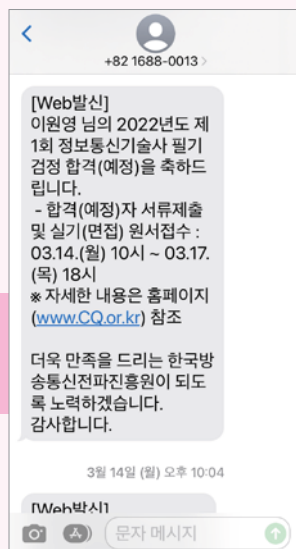
집사람과 상의 후 회사 관리자들의 이해를 얻어 저는 1년간의 안식년을 우선 사용하기로 하여 2019년 11월 강남의 모 학원을 등록, 기본 다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시험은 그 다음 해인 2020년 2월로 400분의 서술형 시험을 견뎌보자는 마음으로 신청, 약 3개월간의 학습을 바탕으로 한 문제 풀이에 도전하였고 60점 합격선에 47점을 얻는 행운(훗날 절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수)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시험의 47점 결과는 13점만 만회하면 당장이라도 합격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기회(?)를 주었습니다.

1년의 안식년 동안 2번의 시험을 치렀지만 역시나 기술사 시험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해 11월 복직으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안식년 동안의 공부 패턴이 회사생활과 불일치하여 그동안 공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불안하였던 차에 회사의 명예퇴직 공고가 발표되고 전 2021년 1월 1일 자로 퇴직자의 몸이 되어 퇴직자로 인생 이모작을 정말 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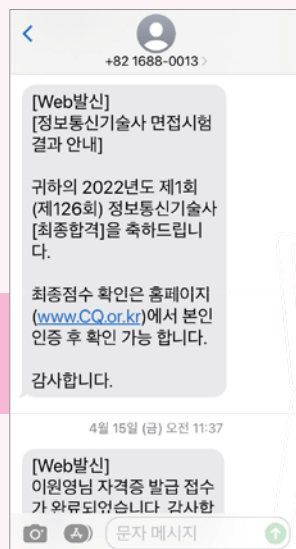
기술사 자격 취득과
한국기술사회 회원증



퇴직 후 명퇴금으로 받은 비용은 매월 월급을 대신해 통장에서 나가게 되고 시험은 3회째, 4회째 연속적인 낙방으로 이대로 계속 공부만 하다가 인생 이모작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 없이 매진한 결과 2022년 4월 15일 최종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2022년 5월 13일 자로 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제2의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필기합격



기술사 최종 합격

다음 연재부터 정보통신기술사 주요과목과 방송기술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므로써 좀 더 쉽게 왜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에 있어 방송기술인들이 접근이 용이한 지에 대해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